

평전이 자리 잡으려면...

평전은 열린 사회의 척도

우리 안의 '금기' 영역 스스로 허물어야

글_나신하 KBS 문화전문기자

2003년 초, 필자는 평전이 독립된 출판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그후 3년이 지났으나 수입 번역서를 중심으로 평전출간이 늘고 있을 뿐, 국내 저자의 평전은 크게 성장한 것 같지 않다. 사실 '평전'이란 어휘와 낱을 익힌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몇 편의 화제작을 통해 인물전기나 자서전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인물서 성격의 '평전'에 익숙하게 됐다. 평전이라는 말 앞에 높여 제일 잘 어울리는 이름을 꼽으라면 '체 게바라'나 '전태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두 인물 모두 한국 출판계에 평전이 터를 잡는데 각각 다른 면에서 공헌을 했다.

한국 출판시장에서 인물관련 서적이라면 둘 중 하나였다. 좋거나 나쁘거나, 즉 위인전이거나 악당 고발서이거나. '불굴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소개하는 위인전은 필수 도서목록이었다. 금기 인물들에 대해서는 나쁜 점만 언급해야 한다는 불문을 이 있었다. 위인전 속의 인물은 결점조차도 미화의 대상이었다.

'악인'으로 단죄된 인물 특히 이념적으로 한국사회와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난의 글을 써야 '안심'이 됐다. 이념적으로 우편향된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 오면서 공과 과, 선과 악, 장점과 단점의 양면성을 가진 인간 자체에 대한 탐구가 존재할 공간은 남아 있지 않았다. 자본주의 신봉자들에게는 금기 인물이던 좌파 혁명가 '체 게바라'가 '평전'의 옷을 입고 한국시장에 등장하고, 탈이념 세대들이 평전을 통해 위인도 악당도 아닌 인간 '체 게바라'를 받아들인 점은, 한국 출판시장에서 평전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것 같은 예표로 보였다. 사담 후세인, 칼 마르크스, 마오쩌둥 등 '적'의 상징에 가까웠던 인물들이 잇따라 평전의 이름을 얻어 출판계에 등장해도, 과거의 당혹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사라졌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전은 아직도 한

국 출판계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악전고투하고 있다.

평전의 위기는 평전 작가의 위기이다. 시중에서 제법 읽어볼 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권할 평전을 고르고 나면 대부분 번역서다. 작가소개란에는 으레 평전 전문작가라는 별칭이 따라 다닌다. 한 인물의 삶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평가하는 작업은 시간과의 고단한 싸움을 전제로 한다. 많은 자료와 증언을 수집해 개인사를 복원하는 작업과 그 삶의 의미까지 천착해야 하는 고독한 작업이기도 하다. 삶의 복원에서 평가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대상인물의 지지자건 반대자이건 간에 격렬한 비난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고단한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평전 전문작가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 활동영역을 불문하고 유명 스타가 탄생하면, 해당 인물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짜깁기한 '000경영학' 류의 책들이 양산되는 것을 보면, 인물에 대한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평전 전문작가로서 명망을 얻은 인물은 거의 없다.

평전의 위기는 열린 사회의 위기이기도 하다. 고난의 현대사를 헤쳐 오면서 형성된 문화, 즉 '실명 비판'의 부재와 이념적 편향성은 '아군'과 '적군'의 편 가르기를 거부하는 '비평'의 토양이 될 수 없다. 현존 인물, 특히 그 인물이 기득권 영역에 있을 경우, '학문적 비판'조차 '보복'의 공포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평전은 좌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피아를 나누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를 본받을 것을 강요하지도 않고, 악의 상징으로 편취하지도 않는다.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분석과 진단과 평가가 이어지는 평전에 우리 사회는 익숙하지 않다. 외국의 인물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상적, 정서적 포용력을 발휘하면서도 국내 인물에 대해서는 분석과 비판을 담은 글쓰기가 쉽지 않다.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안에 남아 있는 '금기'의 영역을 허물지 않으면 한국 출판시장에서 평전은 외국인들이 쓴 외국인 평전의 잔치판이 될 수밖에 없다. **한신**